

國際競爭力의 相對的 水準은 어디?

淑太專任講師

오 수 현

1. 國際競爭力 評價要因들

60년대는 개발의 연대라고 부르며 韓國經濟는 도약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 무렵에 한국 경제가 처하였던 시대적 배경이 1.2차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과 그로 이룩한 經濟關係 각종 指標가 50년대의 不安, 沈滯, 混昧에서부터 탈피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개발의 연대를 통하여 현재의 國民經濟規模와 그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고 그것의 국제적인 위치가 어떠한가를 첫째 통상 後進國開發理論에서 다루는 몇개의 주요 개념에 비추어 본 발전 단계의 추정 및 둘째 國際競爭力 수준의 평가로서 한국경제가 지니는 特性展開過程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開發理論은 경제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의식의 동기가 그러한 것처럼 理論 자체의 假說的 전제가 애당초 논리 전개보다는 現象記述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인 것 政治·社會的인 것 또는 文化史的인 요건까지도 일단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이들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資本蓄積과 경제의 多角化문제
- ② 國際收支의 문제
- ③ 技術革新의 문제
- ④ 人口, 勞動 및 雇傭문제
- ⑤ 土地分配 문제
- ⑥ 傳統意識과 複數社會 문제
- ⑦ 內外政治情勢에의 適應 문제

등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年間國民總生産을 65년도 기준 不變價格으로 보았을 때 1959년의 575.84 (10 億원)에서 1969년의 1,306.19로 2.27배로 늘어났고 經常價格으로는 221.00(10 億원)에서 2,047.11로 9.3배가 되어 이를 1969년 당시의 對美換率 304.55 원으로 환산하면 약 67 億美弗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經濟는 10년간에 2.3배로 늘어났고 그것을 國際貨幣單位規模로 평가하면 약 70 億弗(1969年 現在)인 바 그것의 뒷배경이 위에서 열거한 後進國 일반에 공통된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된다.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하여 좀더 부연하여 보자.

먼저 資本蓄積과 경제의 다각화에 대하여는 자본기능의 非定立과 非貨幣經濟部門의 과중을 중심으로 유명한 「누루크제」의 「貧困의 惡循環論」도 하나의 근거를 주고 있으며 따라서 生産의 投資機會의 부족, 貯蓄過少, 銀行不備, 資本主義 경제의 基礎貨幣單位財 또는 貴金屬類의 非活性 그리고 전근대적 高利貸같은 것이 이미 개발계획의 立案過程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고 또한 그 성과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國際收支에 대하여는 애당초 高度産業 他物品이 없는 바탕에서 유일한 對外決濟 기초가 되는 1次產品의 國內市場價格이 심히 불안정하며 그것이 國際收支面에서 政府外貨收入不足, 貿易收支 赤字發生, 交易條件不利益化 등이 항상 압력으로 되던 그러한 환경은 비록 무역수지의 逆調는 계

속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60년대말에 와서는 많이 변모되었다.

다만 技術革新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60년대를 지나 70년대의 과제로 이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풍부하고 유능한 노동력을 가졌음에도 熟練工不足, 企業·經營人의 부족과 그 비능률성, 낮은 技術水準 및 낮은 生産性 수준 때문에 60년대까지는 대개 이를 海外技術과의 合作, 借款 등 外資投入條件에 바탕을 둔 組立産業의 조장 등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중 人口의 過剩, 국내인구의 移動과 都市集中現象, 潛在失業, 국토의 활용 및 土地分配 등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시책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숙제로 남아 있어 80년대까지라는 시일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傳統意識과 複數社會의 문제도 政府·官僚기구의 정비, 文盲退治, 地方主義, 傳統主義 같은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인 가치체계의 淳化로 協力精神, 勤勞意慾의 涵養, 振作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한 內外政治情勢에의 적응 문제로서 「이테오로지」상의 대립을 비롯하여 國內政治의 불안, 政黨未發達, 어설픈 勞組主義의 피해 등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정상체도에 들어서기까지 꾸준히 추구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미 한국경제가 도약단계에 들어섰다는 假題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였을 때 軌道進入을 위한 始發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始發年代인 60년대를 개발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가를 국제경제에의 寄與度란 면에서 약간의 計數的인 근거로서 國際競爭力要件을 추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2. 國際競爭力의 相對的 水準

國際競爭力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指標로는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점거율이 있다.

한국이 世界貿易市場에 차지하고 있는 輸出占據率(Share)은 아직 0.3%에 지나지 않으나 65년의 0.11%에 비하면 그동안 꾸준히 상승

되어 왔다.

<表 1> 輸出쉐어와 生産力推移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輸出 Share (%)	0.11	0.14	0.17	0.22	0.26	0.30
鑛工業生産增加率(%)	17.9	22.3	27.3	30.4	21.0	16.7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한국경제는 급속한 鑛工業生産의 증가와 수출신장에 의해서 특징되고 있다고 하는 바 65년에서 70년까지 5년간에 世界輸出市場에 대한 Share는 0.1%에서 0.3%로 3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주요국의 Share와 비교하여 보면 東南亞中進國들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表 2> 各國의 輸出쉐어 比較

	美國	日本	中國	比律賓	泰國	埃及
1965年	16.51	5.13	0.27	0.48	0.38	0.37
1969年	15.42	6.58	0.43	0.40	0.29	0.31

특히 日本과 中國을 제외한 餘他國은 1965년보다 1969년의 수출 Share가 약간씩이나마 低落되었음을 보면 한국의 그것의 3배나 뛰어 오른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현재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경제정책의 주요 目標로 經濟成長, 完全雇傭, 國際收支均衡 및 物價의 안정으로 집약되고 있는바 이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國際競爭力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輸出 Share 즉 競爭力의 상대수준 變化要因으로서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① 技術格差 및 技術開發 程度
- ② 環境變化에 의한 國際的 關與度 格差

<表 3> 韓國의 國際競爭力水準推移

	經濟成長率	貿易收支	失業率	物價上昇率
	%		%	%
1964	8.3	64.6	7.7	34.7
1965	7.4	70.5	7.4	10.0
1966	13.4	62.3	7.1	8.8
1967	8.9	47.5	6.2	6.4
1968	13.3	47.2	5.1	8.1
1969	15.9	57.3	4.8	6.8
1970	9.7	66.5	4.5	9.1

③ 勞動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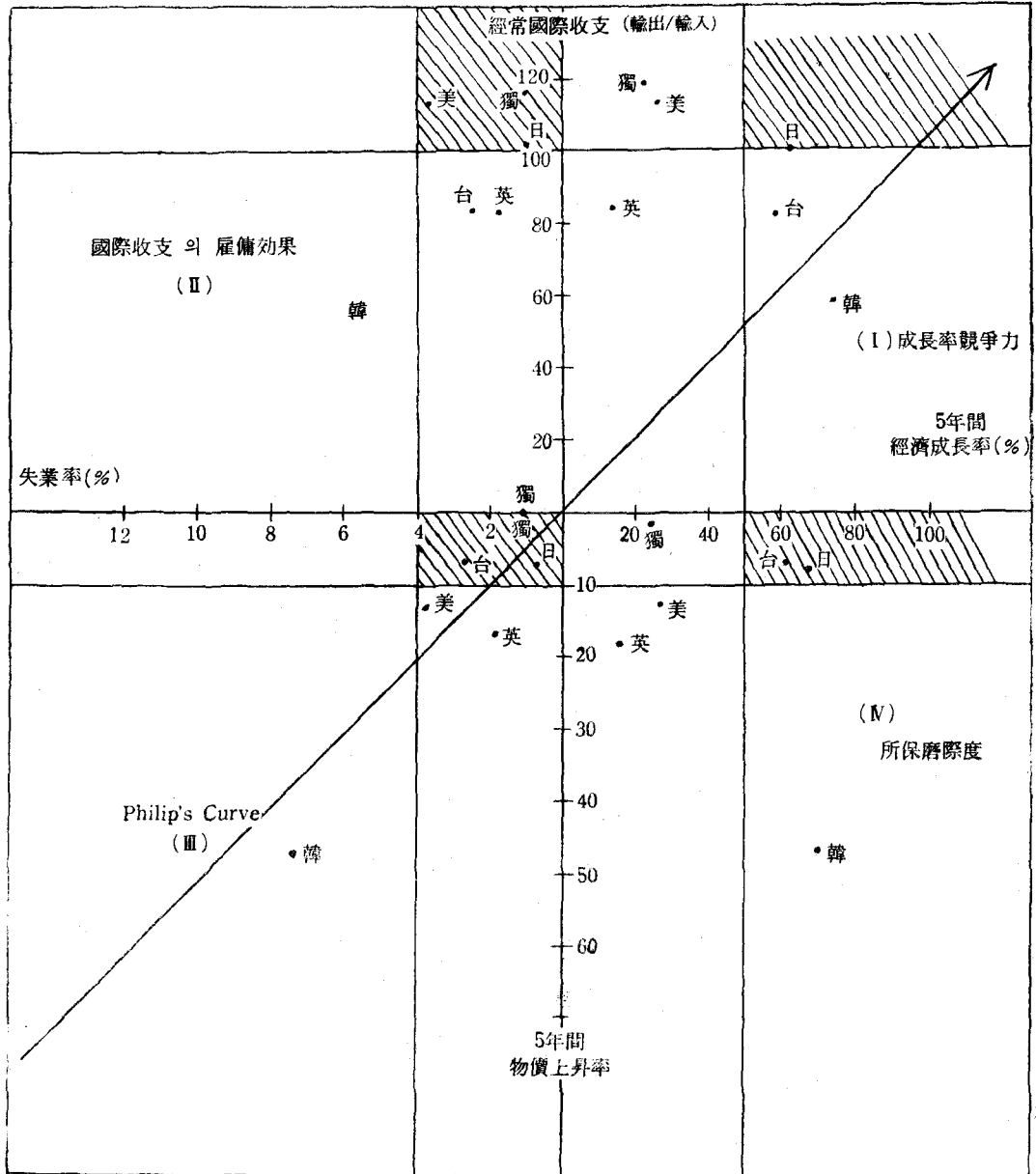
④ 企業經營效率格差

⑤ 勞動生產性 및 賃金の 格差

요컨대 定量化가 가능한 指標로서 본다면 設備投資, 勞動生產性을 중심으로 輸出高, 輸出物價雇傭率, G.N.P 같은 것을 선택하여 이들의 계수를 <表 4>와 같은 國際競爭力 추이 그래프로 그려 볼 수 있다.

<表 4> 그래프에서는 直交座標의 各 방향을 經濟成長率, 國際收支經常比率, 失業率 및 物價上昇率을 택하고 해당되는 좌표상의 各점이 右上向할수록 국제경제력이 良好한 상태로 보는 것이다. 특히 I象限은 成長率競爭力이라고 하며 III象限을 Philip's Curve 라고 한다. I象限에서 보던 한국의 年度別成長率競爭力은 R₁線上에 있어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國際收支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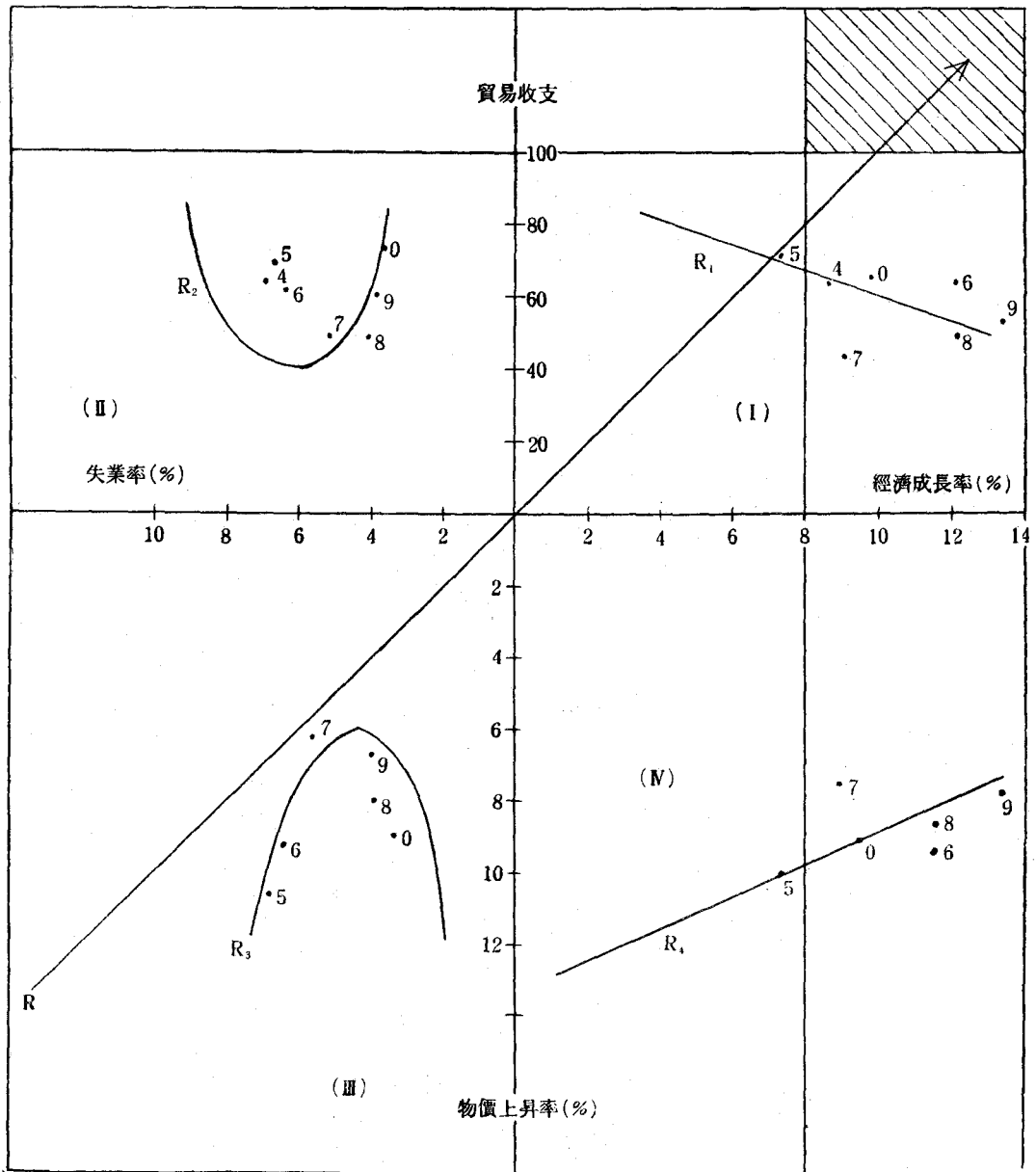
<表 4> 韓國의 國際競爭力水準推移



되는 Pattern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IV象限에서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물가상승은 둔화되는 R₄ 曲線을 보이고 있고 또 失業率이 적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國內에서의 고용기회가 많을수록 국제수지도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R₂ 曲線) Philip's Curve 인 R₃ 線은 失業率이 낮을수록 일반물가 上昇은 급속히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한국경제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서는 이들 좌표상의 점들이 모두 右上方向으로 fitting 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현재의 점보다도 R₁ R₂ R₃ 및 R₄ 曲線 자체가 右上方向으로 Shift 되어야 할 것이므로 (各象限의 斜線區域內에로) 이는 단순한 경제의 take off 이 아니라 모든 經濟·非經濟的 環境의 근대화를 서

<表 5> 60年代 後半期 主要國의 國際競爭力 水準 比較



둘러야 함을 의미한다.

<表 6> 主要國의 國際競爭力水準比較

	經濟成長率	貿易收支	失業率	物價上昇率	備考
美國	25.5	112.3	3.8	12.5	
日本	67.1	100.5	1.0	8.3	
英國	11.3	84.2	2.1	16.5	
西獨	24.8	116.1	1.2	-0.1	
臺灣	62.4	84.5	2.5	6.9	
韓國	72.5	56.7	0.1	46.7	

이를 각국의 국제경쟁력 추이에서 보면 成長率競爭力에서 미국은 65년보다 69년에 많이 약화되었고 日本은 강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美國, 필립핀 등은 약화되고 있고 韓國을 비롯하여 日本, 中國은 강화되고 있되 모든 나라가 競爭力 均衡線인 R線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간단히 한국의 국제경쟁력 위치와 그 추이를 要因分解圖로 고찰한 바 요컨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은 長期的으로는 R₁ R₂ R₃ 및 R₄ 선의 右上方向으로의 Shift 를 기하도록 하면서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均衡線에 끊임없이 집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 글의 始初에서 열거한 開發要因 7個中 ④, ⑤, ⑥, 및 ⑦과 같은 비경제적, 사회적, 制度的 條件의 근대화의 추진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國際競爭力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貿易政策은 선진국의 경우 국제경제에 寄與하는 Commitment의 深化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후진국의 경우에는 國民經濟의 자립을 위한 市場經濟 확립에 진제가 되는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先進國과 後進國家間에는 국제경쟁력 強化要因의 중점이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위에서 본대로 일반적으로 ① 技術格差 ② 國際的 Commitment 格差 ③ 勞動力不足度 ④ 經營効率差度 등을 국가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그에 수반되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① 經濟成長 ② 完全雇傭 ③ 國際收支均衡 및 物價의 安定 등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의 상대적 수준을 提高하

려는데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先進國의 경우에는 ① 完全雇傭 ② 國際收支均衡 ③ 設備投資의 景氣適應性 등을 통한 國際經濟에서의 상대적 경쟁력 수준의 유지를 指向하는데로 기우는데 반하여 후진국의 경우에는 國內貨幣價值安定, 市場 규모의 확대, 企業經營體質의 강화, 生産性提高, 産業高度化 등을 통한 自國內經濟秩序의 安定確立과 國際競爭力 강화와의 유대를 강조한다고 하겠다.

한국의 國際競爭力 수준은 이미 보아 온 바와 같이 수출 Share 면에서 매년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東南亞의 中進國 그룹에 준하게 되었다. 그것의 결과가 성장률 경쟁력의 강화로 이미 國內經濟 규모의 테두리를 벗어나 國際經濟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게끔 되었다. 다만 國際收支의 雇傭效果가 반작용을 보이고 있고 Philip's Curve 나 所得政策上的 磨擦度같은 것을 극복치 못하고 있는 바 이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정책적 과제가 ① 國際收支改善 ② 物價安定 ③ 産業構造의 균형화 및 ④ 經濟體質 즉 企業經營의 체질의 강화로 집약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2.3對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수입과 수출의 逆調은 원조, 借款 등 資本材輸入의 격증에 연유하고 있는 바 개발정책상의 設備投資 強行으로 생긴 이러한 시행착오는 조만간 止揚되어야 할 것은 물론 특히 貿易構造의 多樣化로 이를 補完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對美, 對日 편중의 수출지역 構造나 輕工業商品, 保稅加工品 또는 組立工程品 위주의 商品構造가 지속되는 한 貿易收支의 개선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먼저 상품의 다양화를 위하여는 새로운 공산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그것이 輸出市場을 향하여 진출되어야 하는데 그 단계적 순서는 設備投資로 생산활동이 開始될 때는 먼저 해당 商品에 대하여 國內市場에서 요청하는 需要를 충족하거나 대체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래에 이룩한 輕工業 분야는 물론 重化學工業분야에서도 착수하기 시작한 設備投資와 그것의 완성이 수출로 나타나려면 다소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더우기 이 商品이 해

외의 既成市場에 진출하려면 국내시장에의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최초의 시장 개척기에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개척에 성공하고 나면 사후의 진전은 적어도 초기보다는 나올 것이고 수출의 伸長力은 일정한 수량에 이르기까지 급속하게 증대할 것이다. 이는 中小企業製品에서 重化學工產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또 世界市場에서 嗜好로 하고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地域構造의 多樣化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商品構造의 다양화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國際社會에서의 Commitment 基調를 과감하게 재정비하는 계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특히 西歐와 中南美洲 東南亞 및 아프리카 지역의 政治·經濟패턴이 어떻게 우리의 체질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때 우리의 적응력은 얼마나 신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간단하게 記述할 수가 없다. 그런대로 近

來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特惠關稅制度에 한국이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美, 日을 제외하고는 特惠供與國群인 E. E. C 市場에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에 따라 무역구조의 현재와 같은 跛行性을 극복한다는 것은 바로 國內産業構造의 均衡화를 指向하는 것이 된다. 農工間, 所得階層間 및 地域間의 불균형은 한국경제의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에서도 物價安定을 위하여 한국적 특성으로 지적되던 구조적 Inflation 論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음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한 제 1 차적인 책임은 무엇보다 수출업체를 비롯한 국내기업의 經營合理化 정신의 강화인 것이다. 끝없이 原價節減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고급품의 生産稼得率의 提高 등이 바로 開發輸出商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인 것이다.

近 着 外 國 圖 書

- ◎ Cement, Lime and Gravel, Feb. 1971
 1. Wear-facing in the cement industry. CLIVE COOKSON
 2. Delivery time for ready-mixed concrete. C. MEININGER
 3. BRMCA approved depots
 4. Studies in crushing and grinding. F. C. BOND
 5. Properties of management oxychloride cement A. P. SOM
 6. Massive concrete engineering contract for new smelter
 7. New by-pass provides road cost concrete data
- ◎ Cement, Lime and Gravel, Mar. 1971
 1. The manufacture of Portland cement—2 K. C. BARRELL
 2. A wages policy for the aggregates industry G. J. MORTIMER
 3. Conveyor belt selection
- ◎ Cement, Lime and Gravel, Apr. 1971
 1. Gravel for the motorway
 2. Prospects for aggregates and ready-mixed concrete
 3. Construction output to the end of 1972
 4. Involvement at work: the role of government GEORGE CATTELL
 5. New concrete grooving machine
 6. Natural gas firing of kilns
 7. New kilns double Hope cement work's capacity
- ◎ Far East Engineer May 1971
 1. Industrial lubricants
 2. Air power behind the production drive
 3. Basic concepts of computer time sharing
 4. Application and maintenance of crawler tractor undercarriges